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은행에 관한 연구: 직접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채상수** · 이충열***

국문초록

세계경제는 글로벌화로 인하여 금융산업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제무역 및 국가 간 금융거래는 급증한지 오래이며 그에 따른 은행의 국제금융활동(international banking activities)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Mai Initiative: CMI)가 발의되었으며, 더불어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지역의 역할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으로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에도 이루어졌지만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형태의 법인 진출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비법인 형태의 자회사, 지점 및 사무소 등을 포함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은행의 해외진출은 자산의 외국인직접투자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 형태의 진출을 중점으로 ASEAN 지역에 진출한 은행의 행태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진다.

*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 주저자 :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강사, ssoochae@korea.ac.kr

***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cllee@korea.ac.kr

본 연구는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은행법인을 통하여 실제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이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첫째, 자산의 이동, 둘째, 수익성을 통한 시장 확대, 셋째, 직접투자의 은행 형태, 마지막으로 해외은행법인의 진출특성요인에 따른 시장 확장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으로 아세안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중요한 파트너인 아세안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금융정책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2013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해외 은행법인의 진출을 중심으로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고 아세안 지역으로 유입된 자본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아세안은 최근 자본의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한-아세안 동반성장을 위한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해외은행, FDI, ASEAN, 수익성, 자산, 법인, 금융시장, NIM, ROA

I. 서론

1. 연구 배경

세계경제에서는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¹⁾ 이미 국제무역 및 국가 간의 금융거래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은행의 국제금융활동(international banking activities)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로 진출한 은행들은 지점, 자회사, 사무소 그리

1) 전세계 GDP 대비 금융시장의 비중은 3.7배에 달하였다(IMF, 2012). EU의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이 활발한 편이며 미국의 경우 주식, 채권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시장=주식시장+채권시장+은행자산)

고 현지법인을 통한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외로 진출하였다. 기존에는 지점 및 자회사, 사무소 등의 비중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면 2010년 이후부터는 현지 법인의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에도 이루어졌지만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법인 진출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은행의 진입국 진출에 있어서 진입국의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²⁾ 최근 들어 아세안 지역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세안 지역으로의 금융자본의 진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세안 지역의 자본진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이다. 이 과정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가 발의되었으며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고, 이후 2008년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중·일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초점이 ASEAN에 대한 역할로 관심이 전이되었다. ASEAN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역할에 대한 전이 효과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증대되는 반면에 ASEAN 내에 진출한 은행자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의 해외진출 자체가 큰 이슈를 받지 못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200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는 지점 및 사무소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은행의 해외진출을 자산의 진출이라는 관점으로 고려할 때는 직접

2) Terrel(1986), McFadden(1994), Denizer(1999), Barajas et al(2000), Claessens et al (2001), Unite and Sullivan(2003), Martinez Peria and Mody(2004).

투자의 성격을 가진 법인 형태의 진출을 중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도국 위주의 국가로 이루어진 ASEAN 지역에 진출한 은행 자본의 행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익성과를 통한 금융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은행 위주의 조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의 사회·경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그 중 금융시장의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해당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살펴볼 때 자본의 유입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측정은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자본의 유입이 원활하다는 것은 해당국가의 금융시장에서 수익성 유발효과가 존재하고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주요 기관은 은행의 자본유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은행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질 때 다수의 경우 지점, 자회사, 사무소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 본사의 자본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순수한 자본의 진출로 보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인 형태의 해외진출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법인형태의 은행은 진출대상국에서 독립적인 재정 및 회계기준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진출대상국의 생산성으로 볼 수 있다. 즉, 직접투자의 관점에서 은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은행법인의 사례를 대상으로 자본의 이동과 그 특징을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될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지역으로의 은행을 통한 직접투자는 증가한다. 아세안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따

라 법인형태로 조사한 해외은행의 자산규모는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둘째, 아세안 지역으로의 자산의 이동은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자산의 이동에 따른 기간에 실제로 해당은행들의 수익성의 호전여부를 확인하여 금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적 검증을 한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은행법인의 수는 증가한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요 금융기관 중의 하나인 은행을 중심으로 양적인 변화를 관찰한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수요증대에 따라 해외은행의 진출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넷째, 아세안 지역으로의 해외은행 진출요인으로 금융시장 확장을 검증한다.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은행의 수익성과 요인 모형을 구축하여 모형 간 비교를 통한 금융시장의 확장 기초를 확인한다.

전체 자산의 변동을 2013년과 2017년을 대상으로 차이를 비교하여 해외은행법인 기준 전체자산의 증가여부를 파악한다.³⁾⁴⁾ 또한 은행의 주요 수익성과 변수인 NIM과 ROA를 대상으로 하여도 전체자산과 더불어 차이를 비교하여 변화 정도를 살펴본 후 아세안에 진출한 은행이 어떠한 세부 영업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에 진출한 은행법인들이 어떠한 특성요인을 통하여 진출하였는가를 고정효과 분석으로 확인한 후 앞선 결과들의 강건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된다면 아세안의 은행법인으로 확인한 금융시장은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해외은행 성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은행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진 이후의 직접투자 형식인

3) 본 연구의 연구대상기간은 2013년~2017년으로써 아세안 지역 은행들의 금융자료는 한계가 존재하는 관계로 최대한 수집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하였다.

4) 태국의 경우 2013년부터 외국계은행의 진입에 대하여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3년부터 외국계은행의 진입이 정부신청에서 개별은행 신청으로 변경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법인은행을 대상으로 한 양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은행법인들을 조사하였다. 법인형태의 해외은행을 분류하기 위하여 개별은행의 웹사이트 또는 은행 담당자를 통하여 조사한 후 기초자료를 정리하였으며 그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직접투자 부분에 대한 양적 분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아세안 지역의 은행연구는 기존에도 이루어졌지만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양적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행법인의 모형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시계열이 최근에서야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의 은행법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세안 지역의 해외은행법인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의 확대를 자산, 수익성 지표, 진입건수 그리고 진입요인을 통하여 살펴보기 위한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금융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양적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금융시장의 직접투자 중 은행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산의 실질적 이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분석이라는 점에서 시사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은행 해외진출이론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아세안 지역으로의 해외진출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아세안으로의 해외은행 진출에 대한 로드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은행의 해외진출에 관한 기존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아세안의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자료와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

시한다.

II. 기존 연구

1. 은행의 해외진출 이론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해 논의된 연구들은 대부분 해외투자이론에 접목하여 설명된다. 해외투자이론은 본국의 은행이 진출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수출 등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진출국에 진출하여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금융 분야에서 다국적은행(multinational bank : MNB)의 해외확장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과 국제자본이동의 관점에서 Aliber(1984)는 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중 다국적은행의 해외진출 결정 요인이 해외진출이론과 관련된다.

은행의 해외진출이론은 크게 내부화이론(internalisation theory)과 절충이론(eclectic theory)으로 구분되는데 절충이론이 보다 표준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Williams 1997). 내부화이론은 코즈이론(Coasian theory)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서 불완전시장하에서 외부시장을 활용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외부효과에 따른 거래비용을 MNB를 통해 내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동 이론에서는 MNB가 MNE와 마찬가지로 기업 내부에서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절충이론은 내부화(internalisation), 입지(location), 소유권(ownership)의 주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위가 확보될 때 해외직접투자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서 Dunning(1977)의 다국적기업 모형을 응용한 것이다. 즉, 동 이론은 내부화이론에 입지 요인과

소유권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여기서 입지 우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MNE가 특정지역에서 입지적인 우위를 나타낼 경우에만 대상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관세 장벽, 세율 등의 요인들이 해당된다. 소유권 이점 요인은 진출대상국의 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산의 보유 여부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상품차별화, 평판, 경영 능력, 규모의 경제 등이 포함된다. 해외직접투자이론을 은행산업에 적용한 대표적인 이론연구로는 Dunning(1977)의 절충이론을 은행산업에 적용한 Gray and Gray(1981), Yannopoulos(1983) 등이 있다. Gray and Gray(1981)는 절충이론을 처음으로 은행산업에 적용한 연구로서 상품시장의 불완전성, 요소시장의 불완전성 등에 따른 내부화 이점과 고객 유지, 고성장 시장으로의 진출, 자금에 대한 통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지 이점으로 인해 MNB가 해외로 진출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MNB에 도달하기 전에 규모의 경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은 규모의 경제를 소유권 이점을 구성요소로 구분하지 않았다. Yannopoulos(1983)는 Gray and Gray(1981)를 확장하였는데, 이때부터 절충이론이 MNB의 해외진출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이론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Yannopoulos(1983)는 고객추종(follow-the-client), 국가고유의 규제, 진입 제한 등의 입지 이점, 거래 통화에의 접근가능성에 따른 소유권 이점, 정보우위, 진출대상국 예금으로의 접근가능성 등의 내부화 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은행의 해외진출 결정 요인

은행의 해외진출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특정국가의 은행들이 해외에 진출한 현황을 분석하거나 특정국가에 진출한 은행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은행의 해외진출 결정요인으로 은행특성요인 (bank-specification)과 입지특성요인(location-specifactors)로 구분되고 있다.

(1) 은행특성요인

1) 해외진출 은행의 규모

해외진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출 은행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은행의 규모가 큰 은행이 더욱 높은 해외진출의 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⁵⁾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고객의 수가 많을 수 있다.⁶⁾ 또한 은행의 기존 고객들이 국제화된 시장에서 해외로 진출할 경우 은행도 이를 따라 해외진출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여유자산의 분산투자 및 자국 내에서의 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해외로 진출할 요인이 높아진다.

2) 해외진출 은행의 효율성

은행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은행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은행들이 보다 많은 경험과 발전된 시스템을 통하여 개도국 등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나타낸다. 다양한 연구에서 유럽의 자국 은행들이 해외은행들에 비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지만 미국계 은행들에 비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였다.⁷⁾

5) Balland Tschoegl(1982), Tschoegl(1983), Ursackiand Vertinsky(1992), Williams(1996, 1998), Focarelli and Pozzolo(2005)등의 연구들은 은행규모와 국제화 정도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연구

6) Bergeretal(1995)

7) Focarelli and Pozzolo(2005)

(2) 입지특성요인

1) 양국 간 경제적 통합 정도(degree of economic integration)

은행의 해외진출의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 경제적 통합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통합정도는 일반적으로 양국간의 거리, 무역규모, 해외직접투자 규모, 문화적 동질성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문화적 동질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최근연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에 언어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무소 및 지점보다는 법인형태의 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⁸⁾ 이러한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국가 간의 경제적 통합 정도가 높을수록 해외진출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진출국에 관련된 고객(기업)이 다수 진출할수록 은행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

2) 진출대상국의 규제(regulatory restriction)

해외진출에 있어서 진출대상국의 은행 규제는 진출국 은행의 진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은행 해외진출에 규제가 많을수록 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들이 있다(Nigh et al. 1986; Goldberg and Johnson 1990; Miller and Parkhe 1998; Focarelli and Pozzolo 2005; Cerutti et al. 2007등). Focarelli and Pozzolo(2005)는 은행활동이 많은 국가일수록 지점보다는 자회사 등 법인형태의 진출이 많다는 결과를 보였다. Cerutti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지점형태의 규제가 많은 국가일수록 지점형태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권업, 보험업 부문은 규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은 진출국의 은행산업

8) 법인형태의 진출은 단순 자본이 아닌 국가간의 지식, 기술의 진출이기 때문에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한다.

구조상의 특징으로 존재할 수 있다. 진출국의 정부소유 은행의 시장 지배력이 높을수록 해외은행의 진출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uch and Delong 2004). 또한, 진출국의 정부는 자국의 선도은행의 위치를 해외은행이 선점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은행 진출에 있어서 규제가 될 수 있다(Boot 1999; Focarelli and Pozzolo 2005).

다. 자국 및 진출대상국의 수익창출 기회(profit opportunities)

은행의 해외진출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수익창출 기회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Focarelli and Pozzolo 2005). 은행 특성에 따른 요인 외에도 은행이 속해 있는 국가 및 진출대상 국가의 금융 인프라 구성이 은행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국의 특성 요인으로는 금융시장의 발전정도가 은행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Focarelli and Pozzolo 2005). 즉 금융시장의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은행들은 보다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대상 국가의 금융시스템보다 높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진출 대상국의 특성요인 측면에서는 대상국의 수익창출기회가 더 많으면 해외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Grosse and Goldberg(1991)의 연구에서는 진출대상국의 수익창출기회로써 국가 위험도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해외진출 은행들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Goldberg and Johnson(1990), Yamori(1998), Claessens(2000) 등은 은행의 해외진출과 진출대상국의 1인당 소득 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Brealey and Kaplanis(1996), Buch(2000) 등은 진출 대상국의 GDP와 외국은행 진입정도가 양(+)의 관계를, Goldberg and Grosse(1994), Miller and Parkhe(1998) 등은 진출대상

국의 은행산업 발전 정도와 해외진출이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반면, 수익창출 기회와 해외진출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Nigh et al.(1986)은 30개국에 진출한 미국 은행들을 분석한 결과 진출대상국 시장의 수익창출 기회 요인이 유의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Sagari(1992)에서는 GDP로 측정된 진출대상국의 시장규모가 미국은행들의 해외진출 패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진출대상국의 수익창출 기회와 해외진출 간의 관계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결정요인임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Focarelli and Pozzolo(2005)는 진출대상국의 수익창출 기회와 관련, 은행들은 기대 경제성장률이 높고 은행시스템이 평균적으로 덜 효율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국가로 진출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은행은 기대 경제성장률이 높은 경우, 은행산업의 현금흐름비율과 경비율이 높은 경우(은행산업이 덜 효율적)에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높은 경우의 국가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Ⅲ. 아세안의 금융시장 현황

1. 아세안의 금융시장 및 기관 현황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에 속해 있는 해외 은행법인의 자산의 이동 및 은행 수익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세계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기술적 한계성장의 감소에 따라 대체재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다양한 금융위기를 겪은 글로벌경제는 상당수의 금융자산이 아세안을 위주로 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 지역에 유입되는 금융자본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 대표적 금융자산인 은행업을 하는 기관들의 금융자산의 흐름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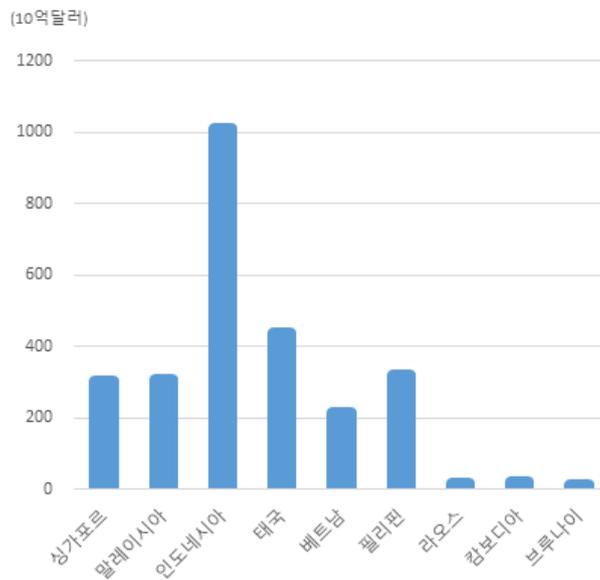
(1) 아세안 지역의 경제·사회 현황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연합체인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자본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금융 및 자본의 이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본적인 경제 및 금융기관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들은 국가 간 자본의 이동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 경제의 특징은 2017년 GDP 규모로 보았을 때 아세안 지역의 평균 경제규모는 2,950억 달러에 이른다. 인도네시아가 1조 1,000억 달러에 이르러 가장 많은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태국과 필리핀이 4,380억 달러, 3,210억 달러로써 그 뒤를 따른다. 라오스, 캄보디아와 브루나이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그 규모가 작은 편이다.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제외하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접한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평균 6조 달러를 넘는 경제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의 1인당 소득 현황을 보면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각 53,880달러와 27,89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기준에서 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9,660달러와 6,336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지만 그 격차는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10,000달러 이하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질적으로 큰 경제적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림 1> 아세안 국가의 경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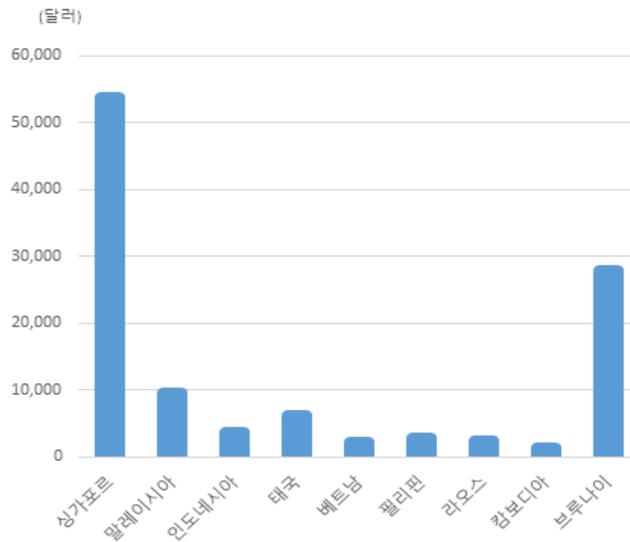


출처: Worldbank, Current Price, 2017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1인당 소득 기준 10,000달러 이상의 국가는 2개국만이 존재한다. 경제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인접한 동북아시아 등에 비하여 경제적 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세안은 지역 내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위주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 역내에서도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격차로 인하여 경제발전단계에 필요한 서로간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만족시키며 경제협력을 이루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아세안 국가의 1인당 소득(2017)



출처: Worldbank, Current Pric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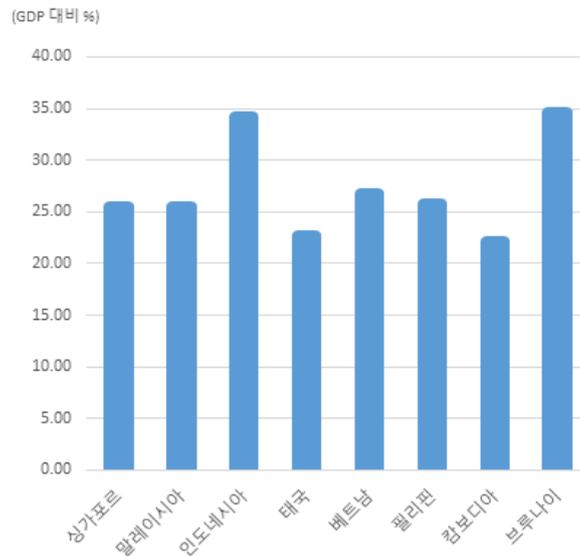
아세안 지역의 양적·질적 편차는 역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연내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값싼 노동력 제공이 용이하며 1인당 생산이 높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같은 나라에 기술기반 생산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여 역내 생산의 연쇄효과를 발동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에도 적용된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아세안 역내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는 특성의 기반 하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질적·양적인 차이는 오히려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가 각 34%로써 가장 많은 GDP 대비 투자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 뒤를 베트남이 26%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 활동은 국가별 큰 편차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GDP 대비 투자 비중은 아세안 국가들이 인근의 선진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비중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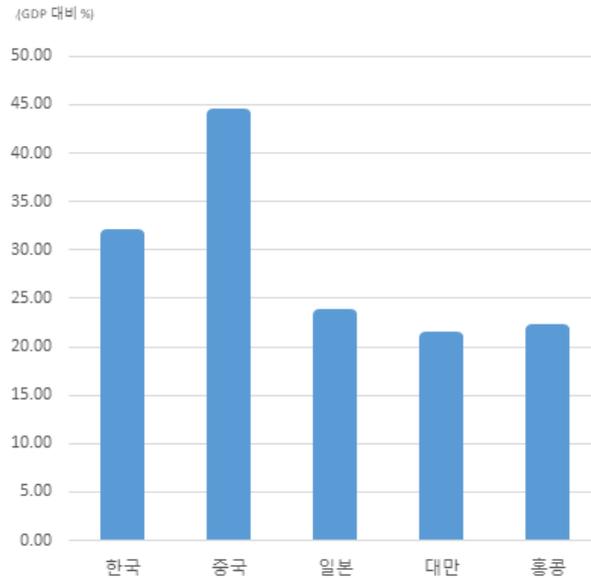
투자 비중에서도 선진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보다 활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이 선진국 수준의 국가들보다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그림 3> 아세안 국가의 총 투자 비중(2017)



출처: Worldbank

<그림 4> 동북아시아 국가의 총 투자 비중(2017)



출처: Worldbank

2. 아세안의 사회·경제적 특징

아세안 지역은 2000년대 이전까지 정치적으로 불안정적인 요소가 많은 지역이었다. 베트남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오랜 전쟁이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은 강력한 반군과의 내전이 존재했다. 아세안 지역의 내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내부적인 안보문제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0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시아 및 서방경제의 관심이 높아지며 개방, 개혁에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으며 정치·안보적인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고 이후에 아세안 국가에 대한 경제

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공산권 국가들인 라오스,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속도는 증대되었다. 특히,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여타 개발도상국에도 영향을 주어 시장경제 및 개방·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 더불어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아세안 협력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아세안은 1967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이 정치협력 체를 위하여 탄생한 지역협력 기구이다. 최초의 협력기구인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은 상당수가 식민

<표 1>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무역증가율

(단위: %)

구 분	국가	1986~90	91~95	96~2000	01~05	06~10	11~17
경제 성장률	아세안	5.71	6.78	4.59	6.24	5.58	5.06
	한국	10.48	8.43	5.65	4.81	3.83	2.86
	중국	8.00	12.30	8.58	9.76	11.26	7.55
	일본	4.99	1.65	1.11	1.18	0.15	1.05
	아세안+3	6.28	6.95	4.71	6.00	5.49	4.78
	EU(25국)	3.32	1.28	3.90	3.51	1.43	1.72
	남미(10국)	2.50	5.99	9.26	5.31	5.06	1.96
	북미(3국)	2.61	2.02	4.54	2.28	1.31	2.32
무역 증가율	아세안	13.91	22.48	7.89	6.49	7.98	7.33
	한국	14.22	15.13	11.49	9.51	8.22	4.39
	중국	-	-	14.8	22.34	13.39	6.39
	일본	7.56	4.79	4.56	5.13	2.51	3.15
	아세안+3	13.32	19.96	8.36	7.95	8.00	6.66
	EU(25국)	6.63	5.81	8.79	7.06	3.50	4.39
	남미(10국)	9.40	13.11	7.95	8.98	8.88	0.98
	북미(3국)	7.94	8.11	10.59	2.88	2.62	3.83

주: 1) 경제성장률은 실질GDP 증가율이고, 무역증가율은 수출과 수입의 평균 증가율임
 2) 각 지역은 다음 국가를 포함한 것임: EU는 25개 회원국(루마니아, 몰타 제외), 남미 10개국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이며 북미 3국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임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7; 이종하·이충열 2013.

지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체제가 안정화되고 경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공동체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게 되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기타 지역에 비해서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하였다. 1980년대부터 아세안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 및 무역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1986년~1990년 사이의 아세안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5.7%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17년까지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지역의 경우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지역의 경제적 중요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역 증가율에서도 아세안은 1986년~1990년까지 13.9%를 보이며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7년까지도 전 세계 기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1) 금융시장 규모

아세안 지역의 금융시장 성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M2와 GDP 비중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M2/GDP 비중을 보면 미국에 비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모두 높은 비중의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세안의 경우 지속적인 금융시장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90.6%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 76%의 금융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0년 이후로는 90%로써 기타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으로써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금융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금융시장의 규모가 높다는 것은 은행업을 하는 금융기관이 다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아세안 지역에 은행의 영업활동 증가를 위한 여건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른 것이라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M2/GDP 비율

(단위: %)

국가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6
아세안	76.23	84.63	72.16	78.21	90.68
한국	79.77	107.47	111.28	127.48	138.00
중국		129.36	153.40	160.64	190.00
일본	103.59	113.13	130.33	143.99	169.00
아세안+3	82.08	95.78	94.45	105.76	122.72
미국	50.86	47.82	52.18	55.55	64.76
독일	-	163.43	169.39	180.15	166.56(13년)
프랑스	-	98.86	106.88	134.45	152.86(13년)

주: 2017년 기준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various issues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various issues

이종하, 이충열(2013) 채구성

아세안 지역의 금융시장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경쟁력지수와 금융경쟁력 지수를 비교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세계경쟁력 지수를 보면 싱가포르의 경우 세계경쟁력 지수와 금융경쟁력 지수의 순위가 3위로써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36위와 37로 비슷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세계경쟁력 지수가 23위이며 금융경쟁력 지수는 16위로 7개단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세계경쟁력 지수와 금융경쟁력 지수가 유사하거나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동아시아의 금융경쟁력 지수(2017년 기준)

국가	세계경쟁력 지수		금융경쟁력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캄보디아	94	3.93	61	4.1
인도네시아	36	4.68	37	4.5
라오스	98	3.91	78	3.9
브루나이	46	4.52	87	4.5
말레이시아	23	5.17	16	5.0
미얀마	-	-	-	-
필리핀	56	4.35	52	4.2
싱가포르	3	5.71	3	5.7
태국	32	4.72	40	4.4
베트남	55	4.36	71	4.0
한국	26	5.07	74	3.9
중국	27	5.00	48	4.2
일본	9	5.49	20	4.9

주: 금융경쟁력 지수에 포함된 지표: Availability of financial services, affordability of financial services, Financing through local equity market, Ease of access to loans,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Soundness of banks, Regulation of securities exchanges, Legal rights index 등이다. 출처: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 - 2018, 2017
 송재국(2017) 재구성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은 세계경쟁력 순위보다 금융경쟁력 순위가 낮게 나타나 금융시장의 발전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더욱 많은 금융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은행기관의 진입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 지역 국가의 금융시장의 지수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자료 조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금융경쟁력 지수를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에서는 싱가포르가 5.7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5.0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3.9로써 다소 상승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2년 4.0에서 2017

년 4.5까지 순위가 상승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 또한 2012년 3.9에서 2017년 4.0으로 미미한 수준의 금융시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의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최근 5년간의 금융시장 경쟁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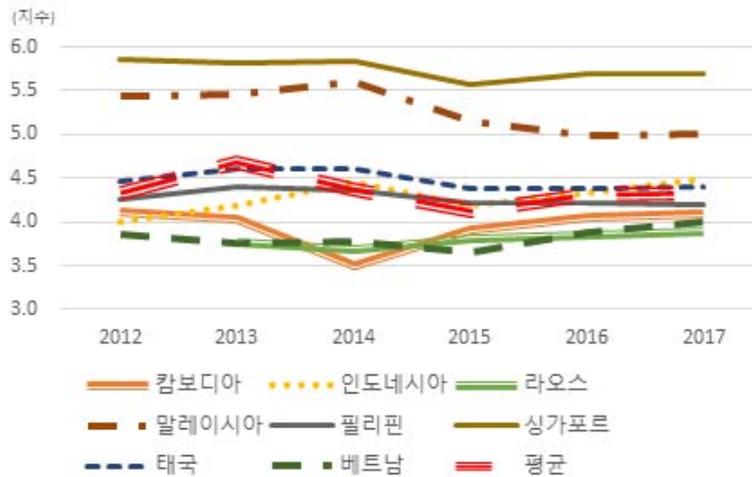
<표 4> 아세안 국가의 금융경쟁력 지수 추이

(단위: 평가지수)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브루나이	4.3	4.3			3.7	4.5
캄보디아	4.1	4.0	3.5	3.9	4.1	4.1
인도네시아	4.0	4.2	4.5	4.2	4.3	4.5
라오스		3.8	3.7	3.8	3.9	3.9
말레이시아	5.4	5.5	5.6	5.2	5.0	5.0
필리핀	4.3	4.4	4.4	4.2	4.2	4.2
싱가포르	5.9	5.8	5.8	5.6	5.7	5.7
태국	4.5	4.6	4.6	4.4	4.4	4.4
베트남	3.9	3.8	3.8	3.7	3.9	4.0
미얀마			2.6	2.4		
평균	4.5	4.6	4.4	4.3	4.4	4.4

권역별로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의 경우 금융경쟁력 지수는 2015년 이후로 다시 상승세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세안 내 상대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 후진국인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상승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아세안에 대한 금융경쟁력은 상대적 후진국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5> 아세안 국가의 금융경쟁력 지수 추이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 - 2018, 2017

3. 한·아세안 관계

한국과 아세안의 무역은 지난 199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한국과 아세안의 무역 규모는 증가세에 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2017년 2018년 각각 414.2억 달러와 404.8억 달러의 사상 최대수준 흑자를 기록하였다.⁹⁾

9) 아세안 지역의 교역은 AEC 기준 경제통합 1, 2단계에서는 일본, 미국과의 교역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경제통합 3단계 이후로는 한국, 중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곽성일 외 2015).

<그림 6> 수출수입과 상품수지(10억 달러)



한국과 아세안에 대한 상호 여행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아세안행 여행객은 2010년 332만 명에서 2018년 898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아세안의 한국행 여행객은 104만 명에서 26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각각 연평균 증가율은 13.4%와 13.3%를 기록하였다.

<그림 7> 한·아세안 상호 방문객수



4. 아세안 주요 국가별 은행 정책 현황¹⁰⁾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제일 남단에 위치하여 해상교역의 중심에

10) 서은숙, 빈기범(2015)을 재구성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무역에서 발생하는 금융자본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어 왔다. 아세안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금융허브이면서 동아시아 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의 자본 이동에 관여하는 홍콩과 경쟁을 통하여 금융도시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지리적 이점으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해외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외국인 거주자도 전체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도시 국가로써 발전하였다.

싱가포르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금융 산업을 주요 육성 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다. 해외금융기업들의 원활한 진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제공하였다.

싱가포르는 자산 기준 외국계 은행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또한 종합은행 수에서는 제한을 두어 국내은행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을 운용한다.

200여개 이상의 해외은행이 이미 운용 중인 싱가포르의 무역금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금융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이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해외은행에 관한 정책을 운용한다.

싱가포르의 전체 은행은 상업은행과 종합금융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은행은 다시 해외은행과 국내은행으로 구분되며 싱가포르의 특성상 외국계 은행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규제의 범위에 따라 종합은행(full bank), 도매은행(Wholesale bank), 역외은행(Offshore Bank)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표 5> 업무 범위에 따른 싱가포르 은행 종류 및 구분

구분		업무 및 영업망 범위	
Commercial Bank (상업은행)	Local Bank (국내은행)	은행법이 허용하는 모든 업무	
	Foreign Bank (외국계 은행)	Full Bank (종합은행)	은행법이 허용하는 모든 업무 점포 및 ATM 수 제한 QFB(Qualifying Foreign Bank)는 25개 점포까지 운영 가능 QFB: ANZ, BNPP, Citibank, HSBC, ICICI, Maybank, SC, SBI 등 6개
		Wholesale Bank (도매은행)	싱가포르 달러표시 소매영업 금지 예금보유한도 제한 점포수 1개로 제한
		Offshore Bank (역외은행)	역외계정(ACU) 내에서 은행법이 허용한 모든 업무 싱가포르 달러표시 영업 금지 점포수 1개로 제한 외국계은행 지점 형식으로만 설립 가능
Merchant Bank (종금사)		기업금융, 증권발행·인수, 인수합병, 포트폴리오 투자, 경영자문 등 업무로 제한 소매금융 금지	

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b)를 재구성.

지점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MAS(Ministry Authority of Singapore)에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MAS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은행도 싱가포르에서 신규 사업장을 열거나 기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MAS는 신청과 관련하여, 승인을 하거나 이유를 붙이지 않고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된 은행은 MAS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 지점, 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싱가포르 외부에서 열 수 없으며, MAS는 그러한 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은행은 싱가포르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법인 혹은 비법인과 합병하거나 다른 법인 혹은 비법인에 인수될 수 없다. 장관은 은행업과 관련된 법 조항들이 준수되거나 계속하여 준수될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은행업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¹¹⁾

은행이나 그 주주들이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합병하기로 하는 계약 혹은 은행의 주주에게 은행이 법인 또는 비법인과 합병된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가 주어지는 계약을 맺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법인 또는 비법인과 합병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은행기관은 주로 상업은행, 이슬람은행, 투자은행, 개발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상업은행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며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에서 많이 운용하는 분야인 소매금융, 무역금융, 국제결제서비스, 외환 및 당좌계정업무를 허락하고 있다. 이슬람 은행의 경우 시리아(Sariah)라고 불리는 이슬람 율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자수익에 대한 지향성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은행과 투자자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증가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도 투자은행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문화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금융 산업에서도 금융수익성 등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별도의 개발금융기관이 존재하는데 Export-Import Bank of Malaysia(수출입은행), Bank Pembangunan Malaysia Berhad(개발은행), Agrobank(농업은행), SME은행, Bank Industrial & Technology Malaysia(산업기술은행), MIDF(산업개발금융;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Finance Berhad)등이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특화된 금융정책을 시행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FSMP(Financial Sector Masterplan)을

11) 아세안 내의 금융기관 및 은행감독기관은 상이한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인허가 및 규제에 일괄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다(이충열 2011). 따라서 AEC는 장기적으로 금융규제 관리에 대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2001년에 공표하고 금융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기본적으로 국내 은행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지만 국제금융시스템의 변화에 적응하여 해외은행과의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측면도 강화되었다. 즉, 이슬람 율법에 의한 측면을 유지하면서 국제시장질서에 걸맞는 금융 산업으로 진일보하는 정책을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는 2013년부터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하여 금융의 명확성 및 정시성을 위하여 ‘이슬람 금융법 2013’(The 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을 입법화하였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해외금융기관의 증가 및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 이슬람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축성 예금과 투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명확히 분리하여 이슬람금융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국내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말레이시아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규제 및 법안을 시행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의 기본인 이슬람금융의 대중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대표적인 법안들을 보면 ‘이슬람은행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이슬람은행법(1983)’, ‘타카풀법(1984)’ 등을 제정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는 이슬람금융의 국제화를 위하여 ‘이슬람 금융서비스위원회(IFSB 2002)’, ‘국제이슬람금융 교육센터(INCEIF 2006)’,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금융센터(MIFC 2006)’ 등을 설립하여 대중화를 규제를 손질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이슬람금융에서도 외국계 은행을 위한 개방적인 규제들이 철폐되었다. 특히, 수쿠크, 이슬람증권, 이슬람펀드 등에서 국제금융을 주도하고 있다.

<표 6> 이슬람금융의 단계별 발전과정

시기	내용
1단계 1983~92 기본 이슬람금융 환경 구축	이슬람은행법(1983년), 타카풀법(1984년)의 제정과 함께 이슬람 금융기관을 설립 1983년, Bank Islam Malaysia Berhad 설립(최초 이슬람 전업은행) 1985년, Syarikat Takeful Malaysia Berhad 설립(최초 타카풀사) 1990년, 외국기업 최초로 Shell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수쿠크 발행
2단계 1993~2000 이슬람금융의 확대(인프라 포함)	1993년, 기존의 전통적 은행업무에 이슬람윈도우 업무 은행의 설립을 허용 1994년, Islamic Inter-bank Money Market(이슬람 단기자금시장) 설립 1996년, 이슬람 윈도우은행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공시 등을 포함) 1997년, 샤리아자문위원회(SAC: Shariah Advisor Council)를 설립하고 샤리아의 해석을 표준화
3단계 2001년 이후~ 이슬람금융의 국제화	2001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초로 수쿠크 국제채 발행 2002년,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s) 설립 주도(이슬람금융 감독의 국제적 기준 작성) 2003년, 외국계 은행에 대해 이슬람은행 면허 취득 허가 2005년, 외국 은행에 대해 이슬람은행 과세 면제 2006년, 국제 이슬람금융센터 설립(MIFC) 2008년, 샤리아연구센터(ISRA), 이슬람교육센터(INCEIF)

자료: Bank Negara Malaysia(2014)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경우 FS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슬람은행일 경우에는 IFS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징이 있다. FSA 및 IFSA에서 승인하는 외국계 은행의 업무범위는 국내은행의 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규제가 주어진다.

2013년 이전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할 경우 양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진출이 가능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진출 은행이 심사 신청 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승인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현지설립 외국은행의 경우에는 3억 링깃이 최소자본요건이다. 최소 자본 요건과 더불어, 그룹에 속한 은행은 반드시 필요 자본적정비율(Capital Adequacy Requirement Risk Weighted Capital Ratio)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¹²⁾

12) 말레이시아 국내은행의 경우 30억 링깃의 최소설립자본이 필요하다.

주주제한 요건도 존재하는데 외국계 은행은 인수·합병 은행의 최대 30%까지의 지분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계 은행 지점의 소유권은 100%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사회는 구성원은 모두 말레이시아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라부안의 경우 외국인의 은행 소유에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점의 경우, 마스터플랜 이후의 경우 은행은 1년 이내에 4개의 지점을 설립 가능하다.

(3) 태국

태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 산업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태국의 경우 은행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지만 그에 비하여 국제화가 덜 된 편이며 오히려 제조 및 서비스업 부문이 발달되어 있다.

태국은 일찍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 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국제금융센터(regional financial center)를 방콕에 설치하여 자본 및 환율관리 등에 선진화를 추구하였다. 이것은 1993년 BIBF(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자본시장 개방정책이 오히려 투기자본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1997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다.

금융위기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련 법, 규제를 정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부문 마스터플랜(FSMP, The Financial Sector Master Plan)’을 세우고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마스터플랜의 은행 관련 규제변환을 보면 1단계: ‘은행부문 구조조정: 상업은행과 소매은행 2종류 라이선스로 은행의 종류 재편’, ‘외국금융기관 구조조정: 외국금융기관의 자회사와 외국은행의 지점(1지점 정책) 2종류로 재편’으로써 은행기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외국계 은행 또한 간결이

분류하여 관리상의 효율성을 높였다. 2단계에서는 금융산업의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3년까지 NPL을 2% 이하로 축소’, ‘금융기관의 규제완화와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을 허용’(영업 범위 및 국내의 영업망 구축에 관한 규제 완화)등이 해외은행의 진입에 변화요인이 되었다. 3단계에서는 국제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글로벌 연계(connected)된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sustainable)’ 경제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중장기 금융체계 확립’이 해외은행의 진입규제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중앙은행법, 금융기관영업법, 예금보험제도 등을 정비하여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손실을 실시한다. 자발적 구조개혁 이후 태국의 은행기관들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태국의 은행기관은 다수가 상업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업은행은 국내은행, 외국계 자회사, 외국계 지점, 소매금융으로 구분한다. 상업은행의 영업범위는 예금과 대출, 외환, 보증, 지급, 송금,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등 종합금융에서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소매은행은 중소기업금융 및 소액거래서비스의 범위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외국계 은행의 경우 대상은행의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대 각 20개까지 지점 및 ATM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지점은 1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 금융업무는 불가하며, 다만 태국 경제 및 금융환경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정보관리를 위한 업무가 가능하다.

태국 정부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는 은행진출에 대한 경향을 바꾸고 있다. 1지점(아외 ATM도 1지점으로 간주) 조건 때문에 다국적 은행들이 오히려 인수·합병을 통한 법인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의 진출을 고려한다.

더불어 외국계 은행의 진출 시에는 1,2억 바트(약 3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태국 정부 소유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거나 정부에 예

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재외 태국인의 전문가 고용을 6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의 계획이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외국계 은행에 대한 설립요건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각종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태국의 금융체제 기여도가 중요하다. 위험자산의 10%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부실채권비중 1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규모가 크고 인지도 및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기본을 이룬다.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은행산업을 상업은행과 지방은행으로 크게 구분한다. 상업은행 부문은 국영은행, 외국환은행, 비외국환은행, 지역개발은행, 합작은행, 외국계 은행으로 다시 분류한다. 지방은행은 상업은행과 유사한 범위의 영업이 가능하지만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영역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범위에 한계가 존재한다. 더불어 상업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수익배분 방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전통은행과 이슬람은행으로 나누어진다.

인도네시아의 은행산업 정부소유의 국영은행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자산 기준 국영은행의 비중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은행에 대한 지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은행산업에서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은행산업에서 외국계 은행의 비중이 99%까지 기록하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산업은 구조조정을 겪고 11%까지 그 비중이 하락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외국계 은행의 비중은 다시 늘어나기 시

13) 태국은 2013년 외국계 금융기관의 은행 현지법인 설립 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작하였다. 2010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외국계 은행이 증가하여 40%까지 점유율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인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OJK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계 은행이 현지법인형태로 진출할 경우 지분은 40%가 최대이다. 더불어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은 1000조 루피아이다.¹⁴⁾

이사회와 운용과 관련하여 OJK가 요구하는 지배주주 적격성 심사 (Fit and Proper Test)를 통과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현지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표 7>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인허가 요건

구분	인가 요건
최저 자본금	3조 루피아
자본조달 실현가능성	별도규제 없음
동일인의 주식 보유한도	40%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한도	30%
임원의 자격요건 및 이사회 구성 방법	- Board of Commissioners(BOC) 최소 3명 * 1명은 인도네시아 Domicile 보유 Board of Directors(BOD) * 모두 인도네시아 Domicile 보유
조직구조 및 관리 운용체계	BOD, BOD, 주주총회
사업계획	1년 사업계획서 제출

자료: 금융감독원(2015b) 인용.

지점 설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데 외국계 은행은 Principle License와 Business License를 모두 취득한 후 OJK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도, 신용등급, 해당 지역 지점망 경쟁도, 은행간 공정 경쟁 등을 판단하여 심사한다. 또한 지점설립에도 최소자본요건이 존재하며 3조 루피아(약 2.3억 달러)가 필요하다.

14) 국내은행의 경우 200조 루피아로써 외국계 은행의 설립시 5배 많은 최저자본이 필요하다.

<표 8> 인도네시아 지점 인허가 요건

구분	인가요건
영업기금	3조 루피아
조직, 인력	Compliance Director 및 이사회 구성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Compliance Director를 선임해야 하고 Risk management working unit 구성
사업계획	3년 사업계획 제출
감독당국 정보제공	금융감독청에 매월 보고
	조직구조 및 관리
	지점 대표자 경력 은행
	지점 대표자의 법규위반
조직구조 및 관리 운용체계	BOD, BOD, 주주총회
사업계획	1년 사업계획서 제출

자료: 서은숙, 빈기법(2015) 인용.

IV.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의 대부분은 은행의 영업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아세안에 진출한 전세계 은행 현황자료는 Bank Focus 15)에서 취득하였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ASEAN 지역에 진출한 전세계 은행의 국가명, 자산(Asset), 순이자수익(NIM), 주요 영업 분야 관련 변수 등의 현황 자료를 2013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원자료사상의 은행들은 자국기반의 은행과 해외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해외은행이 ASEAN 내에 진출한 사례를 개별적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기관의 직접적인 자산 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기에 분류된 자료 중 지점(branch), 사무소(office) 등의 간

15) 2017년 1월 1일부로 Bank Scope에서 Bank Focus로 명칭 변경되었다.

접적인 은행의 진출은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법인(corporation) 형태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ASEAN 내의 해외 은행중 법인 형태의 진출만을 선별하기 위하여, 첫째 인수합병의 사례가 존재하고, 둘째 진출 은행이 본점이 아니며, 셋째 지점 또는 사무소 형태가 아닌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해외은행을 선별하였다. 또한 Bank Focus에 은행정보를 제공동의하지 않는 은행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은행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는 자료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은행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자산(Total Asset)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은행의 영업성파로는 NIM(Net Interest Margin)과 ROA(Return on Asset)를 주요 성과변수로 사용하였다. 은행의 주요 영업 부문은 각 은행 웹사이트의 은행 활동 부문 소개 및 영업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주요 영업부문이 한가지로 국한되지 않는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 영업부문을 분류하여 구분하였다.

2. 연구방법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은행법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Bank Focus에 존재하는 모든 은행 중 아세안 지역에 존재하는 은행을 분류하였다. 아세안 지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인 1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세안 내에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료가 존재하는 은행법인들을 전수조사하였다. 2013년은 말레이시아 및 태국 등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적응 및 해외은행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이 시행된 해이기도 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끝난 후이기에 분석기간으로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아세안에 진출한 자산의 이동 및 증가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지역별 분류를 통하여 아세안에 진출한 은행의 수와 비중을 분류하였다. 지역별 아세안에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별·지역별 비중과 아세안 내에서 역으로 진출한 개수와 비중을 분류하여 비교하였으며 그에 따른 자산의 이동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은행이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주요 영업부문을 분류하여 특성을 파악하여 은행의 부문별 해외은행법인의 진출량의 증감을 확인하였다. 주요 영업부문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부가적인 영업부문을 표기하여 현황을 정리하였다.

아세안 내에 진출한 은행들의 금융시장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NIM(Net Interest Margin)을 지역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더불어 은행의 주요 성과변수로 사용되는 ROA(Return on Asset)의 비중도 지역별로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은행법인의 진출특성으로 금융시장 확장에 대한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뱅크포커스 상의 전 세계 은행 중 해당 국가에 진출한 은행을 모두 분류한 후 그 은행 중 사무소, 지점 등을 제외한 은행을 수기로 분류하였다. 즉, 인수 및 합병 사례가 존재하는 기업으로써 인수합병 이전의 기업이 아세안 내의 기업 소속이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ASEAN에 진출한 전 세계의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해당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들이 존재하며 자료 분류의 주요 방법이 수기분류로 이루어져 자료 분류상에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ASEAN 내에 은행들은 은행의 성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한 것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계열 자료 수집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V. 실증 분석

1.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 은행 현황

(1)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지역별 진출 법인 현황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법인 형태의 은행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전체 법인형태의 진출 건수는 2017년 기준 91건으로 나타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29건으로 가장 많은 진출 수를 나타내며 그 다음으로 역내인 아세안 지역에서 25건, 유럽 지역에서 18건으로 그 뒤를 잇는다. 아세안 역내 진출은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다.

전 세계에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지역별 현황을 보면 인도네시아에 27건으로 가장 많은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에 21건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도 14건의 진출이 이루어져 최근에 비교적 많은 법인기관 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국가들 중 브루나이에는 법인형태의 진출사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유럽 지역의 법인들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상대적으로 높은 건수를 나타내며 동북아시아는 인도네시아에 상대적으로 많은 진출을 하며 최근 캄보디아 진출이 활발해졌다. 북미지역의 은행법인들은 아세안 주요 3국에 상대적으로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에 진출한 은행들은 유럽이 4개(30.8%)로 가장 많았고, 아세안과 동북아시아가 각 3개(23.1%)이었으며 북아메리카 은행도 2개(15.4%)를 차지하여 기타 지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은행 건수 면에서 유럽 은행이 6개(28.6%)를 차지하고 있어서 동북아시아은행이 5개(23.8%)를 차지한다. 반면 자산규모면에서는 살펴보면 아세안이

41.4%, 동북아시아가 13.6%, 북아메리카가 9.1%로 유럽은 33.5%인 것으로 나타나 서로 차이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건수 면에서 아세안이 9건(33.3)이며 동북아시아가 8건(29.6%)를 차지하며 자산 면에서도 아세안 지역이 41.4%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도와 아세안 진출과 비교했을 때 북미권 은행은 4건에서 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럽권 은행 또한 6에서 18건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아세안 역내 진출은 13건에서 2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동북아시아 지역권에서의 진출 또한 14건에서 29건으로 큰폭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건수에서는 40개에서 91개로 증가하여 43.9%에 이르는 증가를 보였다.

<표 9> 지역권별 아세안 지역의 외국계 은행 현황(은행수, %)

(a) 2017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합계
아세안	3(23.1)	4(19.0)	9(33.3)	1(11.1)	1(50.0)	5(35.7)	1(50.0)	1(50.0)	1(33.3)	25(27.5)
동북아시아	3(23.1)	5(23.8)	8(29.6)	3(22.2)	1(50.0)	7(50.0)	0(41.6)	1(50.0)	1(33.3)	29(31.9)
중양아시아	0(0.0)	1(4.8)	2(7.4)	0(0.0)	0(0.0)	0(0.0)	0(0.0)	0(0.0)	0(0.0)	3(3.3)
중동	0(0.0)	3(14.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3.3)
북미	2(15.4)	2(9.5)	1(3.7)	1(11.1)	0(0.0)	1(7.1)	1(50.0)	0(0.0)	0(0.0)	7(9.9)
유럽	4(30.8)	6(28.6)	5(18.5)	3(33.3)	0(0.0)	0(0.0)	0(0.0)	0(0.0)	0(0.0)	18(19.8)
대양수	1(7.7)	0(0.0)	2(7.4)	1(11.1)	0(0.0)	1(7.1)	0(0.0)	0(0.0)	1(33.3)	6(6.6)
합계	13(100.0)	21(100)	27(100)	9(100)	2(100)	14(100)	2(100)	2(100)	3(100)	91(100)

(b) 2013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합계
아세안	3(75.0)	2(33.3)	7(43.8)	1(12.5)	0(0.0)	0(0.0)	0(0.0)	0(0.0)	0(0.0)	13(32.5)
동북아시아	1(25.0)	1(16.7)	5(31.3)	2(25.0)	0(0.0)	5(83.3)	0(0.0)	0(0.0)	0(0.0)	14(35.0)
중양아시아	0(0.0)	0(0.0)	0(0.0)	2(25.0)	0(0.0)	0(0.0)	0(0.0)	0(0.0)	0(0.0)	2(5.0)
중동	0(0.0)	0(0.0)	1(6.3)	0(0.0)	0(0.0)	0(0.0)	0(0.0)	0(0.0)	0(0.0)	1(2.5)
북미	0(0.0)	1(16.7)	1(6.3)	1(12.5)	0(0.0)	1(16.7)	0(0.0)	0(0.0)	0(0.0)	4(15.0)
유럽	0(0.0)	2(33.3)	2(12.5)	2(25.0)	0(0.0)	0(0.0)	0(0.0)	0(0.0)	0(0.0)	6(15.0)
대양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4(100)	6(100)	16(100)	8(100)	0(100)	6(100)	0(100)	0(100)	0(100)	40(100)

2. 아세안 지역으로의 자산 이동 현황

해외직접투자의 성격을 갖는 은행의 법인 진출은 본국의 자산이 진출대상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해외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 은행의 해외진출 빈도와 전 세계 기준으로 대륙별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국가별 은행들은 각기 영업 분야를 비롯한 서비스 방법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선진국의 글로벌 은행과 개도국의 은행은 자산 기준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 기준으로 아세안에 진출한 현황을 살펴본다.

<표 10>을 보면 2017년 기준의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전세계 자산 현황을 알 수 있다. 아세안 역내에서의 유입은 3,756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약 61.8%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매우 큰 비중으로써 북미 지역의 762억 달러(12.5%)와 유럽지역의 932억 달러(15.3%)에 비해서 5배에 가까운 금액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권에서는 712억 달러로 전세계 대비 11.7%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출신지역으로 볼 때 아세안 역내 은행이 전체의 61.8%를 차지하였으며 유럽지역의 은행이 전체 자산의 15.3%를 차지하였으며, 북미지역 은행이 12.5%를 동북아시아 지역 은행이 11.9%를 차지하여, 따라서 아세안 역내 진출한 자산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타 세지역의 은행들이 39.5%를 차지한다.

그밖에 중동 지역권에서 26억 달러(0.4%), 오세아니아 지역권에서 63억 달러(1.0%)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7억 달러(0.1%)의 자산이 유입되었다.

2013년도의 아세안 현황과 비교했을 때 동북아시아 지역권에서는 260억 달러에서 712억 달러로 3배 증가하였으며 아세안 역내의 경

우에는 3,169억 달러에서 3,756억 달러로 18.5%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지역과 유럽지역도 각 5배와 2배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2013년도 진출건수와 비교하여 2017년도 진출건수는 127%, 자산의 진출규모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지역권별 아세안 지역의 외국계 은행 자산 현황(10억 달러, %)

(a) 2017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합계
아세안	254.4 (78.0)	47.8 (41.4)	53.3 (49.2)	12.6 (28.4)	3.3 (28.2)	2.3 (39.7)	1.9 (23.2)		0.00036 (25.0)	375.6 (61.8)
동북아시아	5.2 (1.6)	15.7 (13.6)	29.3 (27.1)	11.4 (25.7)	2.4 (20.5)	0.9 (15.5)	6.3 (76.8)	0.00004 (0.0)	0.00083 (69.2)	71.2 (11.7)
중앙아시아		0.1 (0.1)	0.6 (0.6)							0.7 (0.1)
중동		2.6 (2.3)								2.6 (0.4)
북미	41.0 (14.4)	10.5 (9.1)	5.0 (4.6)	6.3 (14.4)		1.6 (27.6)				76.2 (12.5)
유럽	25.3 (0.1)	38.7 (33.5)	16.4 (12.5)	12.8 (28.8)						93.2 (15.3)
대양주	0.3 (0.1)		3.7 (3.4)	1.3 (2.9)		1.0 (17.2)			na.	6.3 (1.0)
합계	326.2 (100)	115.4 (100)	108.3 (100)	44.4 (100)	11.7 (100)	5.8 (100)	8.2 (100)	0.1 (100)	0.0012 (100)	607.8 (100)

(b) 2013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합계
아세안	223.8 (98.9)	28.5 (47.7)	53.0 (70.4)	11.6 (32.9)						316.9 (82.1)
동북아시아	2.6 (1.1)	0.8 (1.3)	14.1 (18.7)	8.4 (23.8)		0.1 (25.0)				26 (6.5)
중앙아시아			0.2 (0.3)							0.2 (0.1)
중동		0.1 (0.2)								0.1 (0.0)
북미		1.4 (2.3)	5.3 (7.0)	6.0 (17.0)		0.3 (75.0)				13.0 (6.5)
유럽		29.0 (48.5)	2.7 (3.6)	9.3 (26.3)						41.0 (10.3)

대양주										0.0 (0.0)
합계	226.4 (100)	59.8 (100)	75.3 (100)	35.3 (100)	0.0 (100)	0.4 (100)	0.0 (100)	0.0 (100)	0.0 (100)	397.2 (100)

3.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은행들의 주요 사업 분야 현황

아세안에 진출한 은행의 주요 사업 분야를 <표 11>과 같이 구분하였다. 이는 소매금융(retail), 기업금융(wholesale), 종합금융(full finance) 등으로 분류한 금융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아세안에 진출한 은행의 주요 영업부문을 보면 표와 같이 61.8%인 61개 은행이 종합금융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이 각각 19.8%인 18개와 13.2%인 12개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진출은행 중 종합금융업에서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산의 규모면으로는 평균 8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사업 부문 현황(2017)
(a) 2017년

	(건수)										평균 자산규모* (십억 달러)
	싱가 포르	말레이 시아	인도네 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합계	
소매 금융	2	1	6			8		1		18 (19.8)	1.52 (10.6)
기업 금융	1	3	4	3					1	12 (13.2)	3.96 (27.6)
종합 금융	10	17	17	6	2	6	1		2	61 (67.0)	8.89 (61.8)
계	13 (14.3)	21 (23.1)	27 (29.7)	9 (9.9)	2 (2.2)	14 (15.4)	1 (1.1)	1 (1.1)	3 (3.3)	91 (100)	14.38 (100)

(b) 2013년

(건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합계	평균 자산규모* (백만 달러)
소매 금융			4			4				8 (8.8)	1.64 (11.5)
기업 금융			3	1						4 (4.4)	1.45 (10.1)
종합 금융	4	7	10	5		2				28 (30.8)	13.24 (92.0)
계	4 (10.0)	7 (17.5)	17 (42.5)	6 (15.0)	0 (0.0)	6 (15.0)	0 (0.0)	0 (0.0)	0 (0.0)	40 (100)	14.39 (100)

2013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종합금융의 비중은 평균 13.2억 달러에서 2017년 8.89억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반면 건수 면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자산규모면에서 보면 종합금융업을 하는 은행의 자산규모는 132억 달러에서 88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기업금융을 하는 은행의 평균자산규모는 2013년 14억 달러에서 2017년 39.6달러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의 금융시장 확대에 따른 은행기관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국가별 은행 건수 및 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2017년의 경우 해외은행 중 종합금융을 주요 영업 분야로 하는 은행이 가장 많은 61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 5조 3백억 달러의 자산이 진출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국가별 은행의 사업부문 현황
(건수, 10억 달러)

(a) 2017년

	소매금융		기업금융		종합금융	
	은행수	자산	은행수	자산	은행수	자산
USA					4	47.5
Canada			1	14.5	2	2.4
UK			1	6.5	7	52.2
Germany	1	2.9	1	2.6	2	1.9
France			2	2.8	1	0.9
Netheland			1	0.9		
Suisse					2	22.3
Australia	1	2.3	2	1.3	3	2.7
China					6	13.1
Taiwan	1	0.6			2	0.9
South Korea	6	2.3			4	5.5
Japan	3	11.4	2	7.5	5	19.8
Singapore	3	7.2	1	7.0	8	82.6
Vietnam						
Malaysia	1	0.2			10	276.1
Thailand					2	2.7
Cambodia						
Russia						
UAE			1	0.1		
Kuwait					1	2.4
Saudi Arabia						
Qatar						
India	2	0.4			1	0.3
Bahrain					1	0.04
Iraq						
Total	18	27.3	12	43.2	61	533.34

(b) 2013년

	소매금융		기업금융		종합금융	
	은행수	자산	은행수	자산	은행수	자산
USA					2	24.1
Canada					2	1.7
UK					4	39.1
Germany						
France			2	1.9		
Netheland						

Suisse						
Austrailia						
China					2	5.1
Taiwan					1	0.6
South Korea	5	0.6			1	0.01
Japan	1	6.4	1	3.8	3	6.8
Singapore	1	5.8	1	0.002	6	58.5
Vietnam						
Malaysia					5	246.8
Thailand						
Cambodia						
Russia						
UAE						
Kuwait						
Saudi Arabia						
Qatar						
India	1	0.2			1	0.2
Bahrain					1	0.1
Total	8	13	4	5.7	28	383.01

말레이시아의 역내 자산이동이 2조 700억 달러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820억 달러로서 싱가포르가 뒤따른다. 영국과 미국이 약 500억 달러로서 비교적 많은 자산이 진출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전반적으로 자산의 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조 460억 달러에서 2조 700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싱가포르는 580억 달러에서 820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이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390억 달러에서 520억 달러로, 240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으로의 자산 이동의 경우 아세안 역내보다 역외에서의 변화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해외은행들의 수익률 현황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은행들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기관들의 NIM과 ROA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NIM을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표 13>과 같이 아세안과 동북아시아에서 진출한 은행이 3.49%와 3.41%로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이며 북미지역에서 진출한 은행 또한 3.8%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비해 아세안 역내 진출을 제외한 다수의 지역이 다소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진출대상국별로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에 진출한 은행의 NIM이 5.26%와 6.37%, 5.91%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진출국별로 보았을 때 다수의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은행들의 수익성이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수익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NIM의 총평균을 보았을 때에는 2017년 기준 2.85로써 다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3> 지역권별 아세안 지역의 외국계 은행 평균 NIM(%)

(a) 2017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합계
아세안	1.70	0.71	5.67	3.18	2.92	4.37	5.91		na.	3.49
동북아시아	0.76	1.90	3.64	1.29	3.75	9.12		na.	na.	3.41
중앙아시아		4.15	4.23							4.19
중동		-0.42								-0.42
북미	1.38	3.17	6.76	0.00		7.86				3.83
유럽	1.13	0.73	4.53	0.61						1.75
대양주	2.69		6.71	1.41		4.11			na.	3.73
합계	7.66	10.24	31.54	6.49	6.67	25.46	5.91	0.00	0.00	2.85

북미	0.75	0.99	0.08	0.00		3.37				1.04
유럽	-0.06	0.65	1.86	0.67						0.78
대양주	0.60		-0.56	0.07		2.04			na.	0.54
합계	2.60	0.83	2.42	1.28	2.14	9.00	0.37	0.00	0.00	0.23

(b) 2013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합계 평균
아세안	0.96	0.94	1.45	0.67						1.00
동북아시아	1.77	1.24	1.88	0.31		2.40				1.52
중남아시아			1.65							1.65
중동		0.59								0.59
북미		1.73	1.07	2.47		1.37				1.66
유럽		1.20	1.05	1.14						1.13
대양주										0.00
합계	2.73	5.70	7.10	4.59	0.00	3.77	0.00	0.00	0.00	1.08

* 사례가 존재하지만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 na.로 표기

5. 아세안 해외은행의 진출특성요인

아세안 지역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해외 은행기관의 진출특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은행성과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위하여 국가 간·지역 간의 고정효과가 존재할 것을 가정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은행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고정효과들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아세안 지역의 해외은행현황조사를 통하여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 은행법인이 91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NIM과 ROA의 특성으로 아세안 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추가검증을 위하여 해외은행 진출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계

량분석을 실시한다.

특성요인 이전에 수익성 모형을 구축하면서 수집 가능한 43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대상은행수와 시계열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특성요인의 유의성을 위해서는 강건성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1% 내의 가장 유의한 결과만으로 해외진출특성요인 결과에 적용한다.

(1) 분석방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은행성과요인들이 수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추정방정식을 아래 식(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Y_{i,t} = \alpha_i + \beta_1 BV_{i,t} + \beta_2 MV_{i,t} + e_{i,t} \quad (1)$$

식(5.1)에서 종속변수인 Y는 은행의 수익성과 변수인 NIM, ROA를 나타내며, BV는 은행성과변수로서 BV=[ND, EQU, NTTA, TAS, LRGL, TETA]이며, MV는 통제변수로서 MV=[INF, GDP]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론에 기초하여 순서대로 진행한다. 개별 국가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EM, Fixed Effect Model)과 임의효과모형(REM, 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식(1)의 기본 모형에 관측되지 않은 지역 및 연도의 효과를 추가하면, 아래 식(2)과 같다. 이때 모형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다.

$$Y_{i,t} = \alpha_i + \beta_1 BV_{i,t} + \beta_2 MV_{i,t} + \gamma_i + \delta_t + e_{i,t} \quad (2)$$

(3) 아세안 지역 내 해외은행법인의 수익성과 요인 분석

아세안 내에 활동 중인 은행기관들의 수익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은행의 NIM(Net Interest Margin)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은행법인의 주요 금융활동에 대한 이윤을 나타내는 NIM의 실적에 다수의 변수들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건전성 변수인 대손충당비(LRGL)와 순대출액(NLTA)은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이며 -0.035와 -0.089의 계수를 보인다. 대손충당비의 증가는 은행의 영업성과를 감소시키며 순대출액의 증가는 또한 NIM을 감소시키고 있다.

거시환경변수인 물가와 GDP를 살펴보면 물가상승(Inflation)은 해외은행의 아세안 내 활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0.153의 계수를 보임으로써 물가의 상승은 금융수익을 1% 감소시키는데 -15.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거시환경변수인 GDP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0.151의 계수를 보인다. 이는 진출대상 국가의 경제규모가 증가하면 진출한 해외은행법인들의 금융수익성에 15.1%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본변수(EQU)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며 0.011의 영향을 보인다. 즉 해외진출은행의 자기자본 규모의 절대적 증가는 금융수익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대표적 건전성 변수(TETA)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아세안내 은행법인의 자산대비 자본 비중은 금융수익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세안 내에 진출한 해외은행 법인들의 ROA(Return on Asset)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법인의 주요 전체자산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ROA의 실적은 아세안에 진출한 은행법인으로써

의 총자산에 대한 모든 수익성과를 나타낸다. 아세안 내에 진출한 해외은행법인들은 ROA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예대율(ND)과 대손충당금(LRG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나머지 변수들에서는 대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행의 단기예금 대비 대출 비중을 나타내는 예대율(ND)은 양(+)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0.005의 계수를 나타내며 은행법인의 대출 대비 예금비중이 증가하면 은행의 금융수익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영향은 0.5%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LRGL) 비중에서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0.137의 계수를 보인다. 대손충당금의 증가는 은행의 영업성과를 보전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세안 내 해외은행법인들에서는 ROA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손충당금의 증가는 자산에 대한 운용성과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난다.

거시환경변수인 물가와 GDP를 살펴보면 물가상승(INF)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물가와 이자율은 단기적 거시환경에서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자산대비 성과 부문에서는 진출국가의 물가상승은 아세안의 해외은행 ROA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거시환경변수인 GDP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아세안 은행법인들이 전체자산은 금융활동에 있어서 음(-)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효과는 -0.9%로 NIM의 1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¹⁶⁾

16)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금리스프레드의 축소로 인하여 은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따라서 시장경쟁도가 높아질수록 이자수익 부문의 축소와 더불어 비이자 수익부문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변현수 2006). 아세안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의 여지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진출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6> 아세안내 은행기관의 수익성과 요인 분석-PANEL

변수	아세안	
	해외은행법인	
	NIM Fixed	ROA Random
ND	0.010 (0.007)	0.005** (0.002)
예대율		
NLTA	-0.035** (0.015)	-0.006 (0.008)
순대출액		
LRGL	-0.089*** (0.030)	-0.137*** (0.021)
대손충당비		
INF	-0.153*** (0.021)	0.006 (0.003)
물가상승		
GDP	0.151*** (0.020)	-0.009*** (0.003)
경제성장		
EQU	1.114** (0.554)	0.442 (0.384)
자본변수		
TAS	-0.003 (0.002)	0.165 (0.105)
은행의규모		
TETA	0.001 (0.001)	0.000 (0.000)
건전성		
C	-309.928 (43.470)	20.887** (8.266)
관측치	176	176
은행수	43	43
R2	0.358	0.342
Hauseman	16.297 [0.038]	12.257 [0.140]

주: ()는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 **는 각 1%, 5% 유의 수준을 의미함

자산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자본(EQU), 자산(TAS) 그리고 건전성(TETA)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은행법인의 규모와 관련된 변수들은 은행의 수익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아세안 해외은행의 진출특성변수

해외진출은행의 특성요인의 이론적 검토를 위하여 기존의 해외진

출특성요인을 통하여 아세안 해외 은행법인의 진출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의 해외진출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써 ‘은행의 규모’는 자산의 규모로 일반적으로 대변되며 자산의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활발한 해외진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TAS(총자산)의 결과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은행의 규모가 아세안 지역의 은행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인인지를 살펴본다.

‘은행의 효율성’은 은행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 및 운영상의 능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은행들이 보다 많은 경험과 선진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ND(예금 대비 대출금 비중)은 은행의 경영능력을 대변하는 변수로서 동아시아 해외은행의 진출요인으로써 살펴본다.

‘입지특성요인’으로는 양국 간 경제적 통합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 양국 간의 거리, 무역거래규모, 해외직접투자 규모 등을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QU(총자본액)은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은행의 직접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의 대리변수로서 살펴볼 수 있다.

진출대상의 규제 부문 또한 은행의 해외진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연구에서는 규제가 많을수록 음(-)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많은 편이다. TETA(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는 기본적으로 국제결제은행의 BIS 권고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국가별로 그 기준에서 세부화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출국의 규제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살펴본다.

자국 및 진출대상국의 수익창출 기회는 은행이 속해 있는 국가 및 진출대상 국가의 인프라 환경이 은행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국가위험도, 1인당 GDP 또는 GDP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GDP를 통하여 수익창출 기회를 살펴본다.

(5) 아세안 지역 해외은행의 진출특성요인 효과

NIM을 기준으로 한 동아시아 해외은행의 진출특성요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은행의 규모를 나타내는 TAS는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은행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ND를 에서도 강건성을 만족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입지특성요인과 관련한 양국간 경제적 통합 정도의 대리변수인 EQU를 보면 해외 법인은행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FDI의 한 종류이며 FDI의 활발한 관계는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대변할 수 있다. 이 또한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은행법인에서 유의한 효과를 찾기 어려운데 진출국 및 진출대상국의 관계는 아세안으로의 진출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인다.¹⁷⁾ TETA 또한 모든 모형에서 특별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진출국의 규제 자체는 아세안으로의 진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익창출기회를 대변하는 GDP를 보면 NIM 기준 아세안은 양(+)의 효과를 가지는데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위주인 아세안 지역은 해외은행의 진출특성으로 수익창출기회는 효과적이다. 또한 ROA 모형에서 아세안의 GDP는 음(-)의 영향을 가지는데 전반적인 ROA의 감소에 GDP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금융시장 확장에 일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선 현황조사에서 논의되었던 NIM과 ROA의 격차는 순금융수익과 전체자산의 운용 관련 수익과의 격차로써 아세안의 금융시장으로의 유인인 존재하며 운영비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황조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아세안 금융시장의 확대 양상을 확인

17) 금융시장 규모가 작고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현지법인보다는 지점 형태의 해외진출이 많았다(변현수 박정희 2009). 아세안 지역으로의 해외은행법인의 증가세는 글로벌 경제의 하락세와 함께 보다 높은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할 수 있다.

<표 17> 동아시아 해외은행의 진출특성요인(NIM)

해외진출요인		변수	NIM	ROA
은행의 규모		TAS		
은행의 효율성		ND		
입지특성요인	양국간 경제적 통합 정도 (degree of economic integration)	EQU		
	진출대상국의 규제 (regulatory restriction)	TETA		
	자국 및 진출대상국의 수익창출 기회 (profit opportunities)	GDP	+	-

V. 결론

글로벌 경제는 이미 국가 간·지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기관들은 비교우위를 앞세워 국내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업들은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장을 세계화함으로써 시장을 국내에서 한정하지 않고 해외에서 보다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해외에 진출시키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국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영·미권의 선진 금융시스템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한계점에 이르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게 되었다.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세안 지역이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미 아세안에 진출한 금융기관들은 많은 이윤을 창출하였으며 새로운 기업들도 추가적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

파와 더불어 사회·정치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부문에까지 미치고 있다.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서비스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순수한 투자방향을 살펴보았을 때 아세안 지역으로의 해외은행 진출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의 은행법인은 2013년~2017년 사이에 40개에서 91개로 약 43.9% 증가하였다. 이 중 건수에서는 동북아시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중 면에서는 유럽지역에서 6건에서 18건으로 20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진출 결과를 보였다.

금융성과 면에서도 확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기준 아세안 지역에 유입된 은행법인의 자산 크기를 보면 아세안 역내 유입이 3,756억 달러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3년의 316.9억 달러에 비하여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중 면에서는 동북아시아 71.2억 달러로 약 173%, 북미지역이 76.2억 달러로 약 486% 그리고 유럽지역이 93.2억 달러로 약 127% 증가하여 비아세안 지역의 자산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외은행법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종합금융의 형태가 61건으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1인당 자산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기업금융의 비중에서 큰 증가를 보였다. 아세안의 지역 특성상 다국적 종합은행업을 하는 은행의 수가 증가하면서 업무분야는 특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도매금융(wholesale bank)을 통한 전문화된 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금융시장 확장에 대한 양적 분석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 동안의 수익성 모형을 구축하여 살펴보면 자국 및 진출대상국의 수익 창출 기회(profit opportunities)에서 NIM에서는 양(+), ROA에서는

음(-)의 결과를 보인다. NIM은 순수인 금융수익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ROA는 은행기관의 모든 영리활동에 관한 수익을 포함한다. NIM과 ROA의 격차의 확장은 해당 금융시장의 확장의 한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단순 현황조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아세안의 해외은행법인의 진출요인으로서는 진출대상 국가의 경제규모의 증대가 가장 중요한 특성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의 금융시장은 모든 면에서 확장기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아세안 역내의 교역량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비아세안 지역에서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아세안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한국 경제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 양상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협력을 통하여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 변현수·박정희. 2009.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경영연구* 24(3): 287-319.
- 변현수. 2006. “외국자본 진입과 은행산업 집중화가 국내은행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산은조사월보(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610: 1-32.
- 이충열. 2011.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동남아시아연구* 21(3): 139-203.
- 서은숙·빈기범. 2015.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전략.” *전략지역심층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1): 1-379.
- Beck, Thorsten., Demirgüç-Kunt, Asli and Levine, Ross. 2009. “A New Database on Financial Development and Structur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4: 597-605.
- Brealey, Richard A and Kaplanis, Evi C. 1996. “The Determination of Foreign Banking Lo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15: 577-597.
- Buch, Claudia M. 2003. “Information or Regulation: What Drives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of Commercial Bank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5: 851-869.
- Buch, Claudia M. 2000. “Why Do Banks Go Abroad? Evidence from German Banks.”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Instruments* 9: 33-67.
- Yuan-Li, Tsai and Chung-Hua, Shen. 2012. “Determinants of Overseas Expansions for the Top 1,000 Global Banks: Application of Eclectic Theory.”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아세안에 진출한 해외은행에 관한 연구: 직접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245

20(4): 23-57.

- Chung-Hua, Shen and Yuan-Li Tsai. 2011. "Impact of Corruption on Banks' Overseas Investments." *Journal of Management* 28(2): 127-143.
- Cheng, Ding. 2008. "On Strategic Overseas Expansion of China's Domestic Banks." *New Finance* 2008(1): 38-41.
- Cho, Kang R. 1986.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Bank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26: 10-23.
- Dunning, John H. 1993.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N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29: 395-418.
- Goldberg, Lawrence G and Grosse, Robert. 1994. "Location Choice of Foreign Bank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46: 367-379.
- Gray, Jean M and Gray, H. Peter. 1981. "The Multinational Bank: A Financial MNC?"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5: 33-63.

(2019.12.15. 투고, 2020.01.16. 심사, 2020.04.20. 게재확정)

<Abstract>

A Study on Foreign Banks Entering ASEAN: Focusing on the Direct Investment Sector

Sang Soo CHAE · Choong Lyol LEE
(Korea University)

The global economy is a situation in which the financial industry is emerging as the most influential service industry due to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and cross-border financial transactions have already surged, and the bank's international banking activities have expanded significantly.

The growing importance of research in the ASEAN region began with discussions on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In the process, the Chiang Mai Initiative(CMI) was launched. In addition, the ASEAN region's role theory as a partner for shared growth is increasing, leading to interest in the financial market.

Although studies on the overseas expansion of banks, which play a major role in the financial market, have been conducted in the past,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what kind of corporations have entered the ASEAN region. Existing related studies conducted an analysis involving subsidiaries, branches and offices in the form of non-corporations. In addition, the overseas expansion of banks can be viewed as a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asset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behavior of banks that entered the ASEAN region with a focus on entering into a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direct investment is increasing and financial markets are expanding through overseas banking subsidiaries in ASEAN. Therefore, we first check whether the market expands due to asset movement, second, market expansion through profitability, third, bank form of direct investment, and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entry into overseas banking subsidiaries. If the ASEAN financial market is developing under such various conditions, Korea will be able to operate policies more efficiently.

As of 2013 and 2017, we will analyze the changes in flow centering on the entry of overseas banking subsidiaries in the ASEAN region, and discuss the important role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capital flowing into the ASEAN region.

In ASEAN, the direct investment of capital has been actively undertaken and the financial market is expanding. Therefore, there are sufficient requirements for the mutual growth of ASEAN in the financial market.

Key Words: Overseas Bank, FDI, ASEAN, Profitability, Assets, Corporations, Financial Markets

